

투데이 칼럼

2023년 한반도 전망

북한은 2023년 첫날부터 수십 개의 초대형 방사포를 공개하며 대남 위협을 이어 갔다. 조선중앙TV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이 12월 31일 당중앙위원회 분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라고 과시했다.

초대형 방사포를 12월 31일과 1월 1일, 각각 3발과 1발 발사했다고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는 사실상 한국만 겨냥한 위협적인 무기 체계다.

만에 하나 북한이 서울 도심을 전술핵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크게 열려난다. 5kt(킬로톤) 규모의 지위력 전술핵무기가 용산 상공에서 터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하면 알 수 있다.

먼저 핵폭발로 반경 150m 규모의 거대한 불구덩이가 생기고, 폭발지점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건물 등 대부분의 것들이 파괴된다. 사망 1만 2천여 명 등 사상자는 최대 4만 4천여 명에 이르고, 2차 피해 규모는 10만 명을 훌쩍 넘긴다.

또 반경 1km 내 생명체는 치명적인 방사능의 55v(시버트) 방사선에 노출된다. 겨울철 북서풍까지 고려하면 방사성 낙진은 폭발지점에서 약 70km 가량 떨어진 경기도 평택



정복규
논설위원

일대에도 떨어진다.

핵 교리상 군부대 공격이 목적인 전술핵으로 도심을 타격하진 않고 지하 공간 등을 감안하면 인명피해는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핵은 바뀌어도 북한의 핵 선제공격 협박은 여전하다. 2023년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짚어볼 일이다.

매서웠던 한파가 좀 누그러지긴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한반도 상황은 끔찍 얼어붙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 높아만 가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화와 안보를 지켜낼지 우려된다.

이미 북은 지난 가을에 핵교리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을 명시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핵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때문에 북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북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지난해 김정은이 직접 나와 425 독트린이라 해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격적인 핵전략을 스스로 보여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강한 핵 능력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늘 예기치 않은 오인과 불신 오해에 따라서 작은 충돌이 확전될 수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매우 공격적인 핵전략과 능력은 분명히 우려가 된다. 사실 새해 들어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새해 첫날 쓴 미사일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다. 위협적인 도발은 전반적으로 작년 9월 20일부터 본격화됐다. 특히 한반도의 계속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있어서 올해 1월 1일 까지도 계속됐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들의 이런 핵능력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암묵적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박을 가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다. 미국을 공격하는 것보다 한미 동맹이라든가 한미 군사 안보 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쪽에 약한 고리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약한 고리에 손을 대서 흔들어 보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전술핵을 강화하는 것이다.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가 위협적인 것은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을 같이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짧게는 6~7초, 길어야 30초 내외로 한발씩 발사한다. 6발이 발사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2분 내에 끝난다. 만약 삼십 대가 6개 발사되면 180발이 남쪽으로 2분 내에 날아올 수 있다.

이것이 400킬로라고 하면 평양 원산 산에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부산 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2023년도 한반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사설

국민의 힘 전당대회 양상

얼마 전까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강경해 보였다. '출산 시 부채 탕감'이라는 나 부위원장의 말이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공개 설명에도, 나 부위원장이 SNS 등을 통해 이를 재차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부위원장에서 해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며칠 뒤 나 부위원장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사의'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당장 나경원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는 건,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만 동시에,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불명실득 작업도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시간을 갖고 이른바 '탈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재신임하면, 나 부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갈등을 봉합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실리'를 얻고, 나 부위원장은 '명분'을 얻는 것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래도,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사태로 지난 한 주 잠재적 당 대표 후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데다 당내 여론도 나쁘지 않은 만큼 결국에는 출마를 결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고 이후에는 설 명절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 부위원장을 둘러싼 이야기는 명절 말상 민심의 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결론이든 명절 이후에 명확해 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협 면접장서 성희롱

전주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자리에서 여성 지원자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이다.

선정적인 출까지 취보라 시켰는데, 인권위는 "성적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 한 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 창구 업무 등을 볼 직원을 새로 뽑기로 하고 면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면접위원들이 성희롱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

면접 위원은 여성 지원자에게 불 한잔 먹게 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한 뒤, "이쁘시구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가 몇인지, 주량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모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질문들이었다.

부적절한 발언과 강요는 계속됐다. 지원자가 대학에서 홍보 부장을 맡았던 경험을 강조하자, "키가 있겠다며 노래하고 춤을 춰보라 시킨 것이다. 선

정적인 동작으로 유행하는 춤을 꼭 찍어 권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면접위원들은 "응모를 두고 질문해선 안 된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춤을 시킨 건 자신감을 엮보려 한 '이상적 면접'이었다고 말했다.

전주 00신협 관계자는 "자신 있는 노래 한 곡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울동 있는 것도 있으면 좋고,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이게 성희롱일까? 설마라고 생각했죠. 죄송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성희롱 개념조차 없느냐고 비난한다. 인권위는 신협중앙회장에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권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신협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2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는 임원 대상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다. 갈수록 비난 여론이 높아가면서 파장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르비아 호수서 쓰레기 걷어내는 청소선



지난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남서부 프리보이 인근 포트페코 호수에서 소형 청소선이 수많은 쓰레기를 밀어내고 있다.

미 국방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분명"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맞춰져 있다.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분명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신중한 미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